

병 안에 솔방울이 어떻게 들어갔을까?

개발자	지하늘(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)
솔방울비늘이 펴지고 오므라드는 현상을 마술처럼 소개해서 탐방객의 흥미를 유발시킨 후 솔씨를 직접 날려보는 시간을 갖는다.	
활용대상	유아 ~ 성인
활용시기	사계절
준비물	솔방울, 빈 우유통(플라스틱 or 유리병)
소요시간	15분
제작비용	약 1,500원





운영사진1) 솔방울이 병 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질문하는 장면



운영사진2) 어떻게 들어갔을지 이야기 나누는 장면

운영방법

1. 소나무와 솔방울에 대한 설명을 한다.
2. 가방에서 솔방울이 든 병을 꺼내 어떻게 솔방울이 작은 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물어본다.
3. 어떻게 들어갔을지 같이 이야기 나눈 후, 솔방울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밀을 이야기 해준다.
(습기가 있으면 솔방울비늘이 오므라들고, 햇볕에 놔두면 솔방울비늘이 퍼지는 원리)
4. 왜 비가 오면 솔방울이 비늘이 오므라들고, 햇빛을 보면 퍼지는지에 대해 설명해준다.
5. 솔방울이 솔씨를 보호하기 위해 오므리고, 퍼지는 것을 설명해준다.

향후방향

솔씨가 가득한 솔방울과 솔씨를 보여주며, 솔씨 생김새를 관찰하고 어떻게 날아가는지 설명해준다.

참고내용

- * 솔씨처럼 바람을 타고 번식하는 방법(풍매화)에 대해 설명한다.
 - 종자에 털이 모여 타래를 이루는 나무 : 사시나무, 버드나무
 - 종자에 날개를 발달시켜 이동하는 나무 : 소나무, 단풍나무, 오리나무, 자작나무, 신나무
 - 날개모양의 긴 포를 달고 이동하는 나무 : 피나무
- 갑작스러운 이상기온이 발생할 경우, 날개가 있는 나무들은 그렇지 못한 나무들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데 유리하다.

주의사항

- 우천 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솔방울이 든 병을 준비해둔다.